

여수·광양·보성... 전남은 온천 개발중

워터파크, 리조트 등에 밀려 사양산업으로 불리는 온천이 올 들어 전남지역에서 개발 붐이 일고 있다. 건축공사 중이거나 전남도에 개발 신청이 접수돼 협의가 진행중인 곳이 5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온천이 발견됐다고 신고된 지 8~16년이 지난 곳으로, 온천 관광이 예전만큼 인기를 얻지 못하자 민간사업자들이 개발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 전남도가 온천발견 신고를 한 민간사업자에게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신고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업포'를 놓자 부랴부랴 실행에 나선 것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온천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곳이 여수시 봉계동, 보성군 별교읍 등 2곳, 건축허가 준비나 개발계획 협의의 중인 곳이 해남군 화원면, 장성군 북이면, 광양시 성황동 등 3곳이다. 이들 외에 광양시 다압면에서도 온천이 발견돼 조만간 개발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05년 영광군 백수읍이 온천지구로 지정돼 운영에 들어간 뒤 신규로 조성

한 온천은 없었다.

해남군 화원면의 경우 한 민간사업자가 8만3248㎡의 부지의 절반을 사들인 상태로, 지난 2009년 전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5년 만에 727억원을 투자해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절차를 마치고 지난 22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사항을 공시했다. 이 부지 내 온천수는 모두 631t인 것으로 추

산된다.

장성군 북이면에서는 온천욕이 아닌 마실 수 있는 온천수가 발견돼 전남도와 개발계획을 협의 중이다. 음용이 가능한 온천수는 전국 최초로, 민간사업자는 최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용 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결과를 건넬받아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온천 인기가 예전만 못하면서 연간 이용자는 매년 감소, 잇따른 온천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전남도, 사업자에 '방치시 신고 취소' 통보
2005년 이후 신규 조성 없다 최근 5곳 '붐'

사실이다. 임야나 농지 등 천혜의 자연을 파헤쳐놓고 정작 지역경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운영중인 화순군 도곡면 도곡온천 50만명, 구례군 산동면의 지리산온천 38만명, 화순군 북면 화순온천 30만명 등 7곳의 온천개발지구 44개 시설에 다녀간 이용자는 고작 182만9000명에 불과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발견 신고만 하고 방치돼 있는 온천지구에 대한 구조조정 차

원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개발 의지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며 "지구 지정 이후 2년 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어떻게 하는 지 꾸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지역에는 면적이 3만㎡ 이상 온천 원보호지구가 8곳, 3만㎡ 이하 온천공보호구역은 3곳, 온천발견신고가 접수된 곳은 2곳 등 모두 모두 13곳에서 온천이 개발됐거나 개발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쌀 박물관 개관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9일 오후 영암군 삼호읍 전라남도농업박물관 내에 들어선 쌀 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다. 쌀 박물관은 '겨레와 함께한 쌀'이라는 주제를 담아 1층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2층은 3D영상실, 쌀 체험실, 쌀 카페 등으로 꾸며졌다. <관련기사 22면>

대학 재학중 입대 '군 복무 학점제' 도입 추진

국방부, 최대 9학점 부여...군가산점제 부활·형평성 논란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모든 현역병과 보충역에게 무조건 일정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 이행자 전체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로 군 복무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고 병사의 80%가 대학 재학생"이라며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개 학기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 등이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자는 85%가량인 38만4700여명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방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대한 장병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

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일일 전망이다. 이미 폐지된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은 군 가산점제도의 대안이 아니라 군 복무로 인해 대다수 입대장병이 겪는 학업 단절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중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문화창조원, 개관준비 세미나

내년 광주에서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내 문화창조원의 콘텐츠 내용과 운영방향 등에 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아시아문화개발원은 10일 오후 광주CGI센터에서 '문화창조원, 세상을 바꾸는 창조자들의 열린마당'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창조원의 이영철 예술감독이 그동안 마련해온 콘텐츠 종합 계획안과 세부적인 개관 콘텐츠 준비 현황을 소개한다. 김명중 교수(호남대 신문방송학) 사회로 진행되는 지정발표와 토론은 김홍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등이 맡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

추억이 된 '현대극장'

광주시민 문화 휴식처 개관 53년만에 철거... 오피스텔 건립

'태평극장, 아카데미 극장에 이어 현대극장까지' 광주시민의 문화·예술 휴식처 역할을 했던 현대극장이 완전히 철거돼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9일 광주 동구청 등에 따르면 동구 수기동 광주전남의 현대극장이 최근 철거되고 그자리에 도시형 오피스텔 건립이 한창이다.

1961년 문을 연 현대극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제일극장 등과 함께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말 복합 상영관이 문을 열면서 2002년 4월말 이정환 감독의 영화 '집으로'를 끝으로, 2003년 1월 폐업신고와 함께 문을 닫았다. 현대극장과 어깨를 겨뤘던 태평극장도 그즈음 문을 닫아 광주 시민을 안타깝게 했다.

현대극장은 2003년 말 라이브 공연 전용 시설로 바꾸면서 재기를 꿈꾸기도 했



지만, 결국 문을 닫았다.

지난해 3월에는 빛고을문화관 부지로 선정됐지만, 다른 부지에 밀려 무산됐고 금융기관에 매각됐다.

최근에 주변 건물과 함께 매각되면서 오피스텔이 건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극장이 사라짐에 따라 광주에는 극장으로는 1935년에 문을 연 광주극장만 남게 됐다. /이종행기자 golee@

광산구에 승마장 2곳 건립

삼도·동곡동 15억 투입...내년 2월 완공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과 동곡동에 민간 승마장 두 곳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9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20%와 지방비 20%, 민간사업자 자부담 60% 등 총 15억원을 투입, 삼도동과 동곡동에 민간 승마장 두 곳을 내년 2월께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승마장은 실내·외 마장, 마사, 관리사, 편의시설, 교육장 및 관련 시설,

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재활 승마 관련 시설, 창고, 퇴비사 등이 설치된다. 현재 광주에는 민간 승마장 4곳을 포함해 승마장 5곳이 운영 중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승마 인구 확대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을 개설해 승마교실을 운영하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 등 민간 승마장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중-52297호

노안시력 노안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다시살아나는 부동산 시장!!

201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신투자전략 무료 특강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전문가 김영포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생계형 투자하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중저가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소	NC백화점(구,현대)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4.6.11.(수) 2시/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사전예약)

강/의/내/용

- 2014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 광주·전남 토지투자 새로운 전략 및 뜨는지역 대공개
-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전략
- 수익형 부동산 틈새 아이템 투자전략 대공개
- 3천~1억 토지투자 월세받는 투자비법 공개
- 개발지 상공투자하는 비법공개
- 도시 재생사업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전략

김영포 부동산 실전문가 전문가

(현)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영지부동산 아카데미 소장
(현)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다수특강
(현)전국순회 부동산세미나 80회 이상

NAVER 영지R&D 부동산연구소

2014학년도 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여러분의 뜻 다 이룬 꿈을 전남대 산업대학원에서 이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주1-2회, PM7-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6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무 논문제)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인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 왕의재 공학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 원단기자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원일정

구분	일시
입학원서 작성	2014.06.10.(화) ~ 2014.06.20.(금)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4.06.10.(화) ~ 2014.06.20.(금)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합격자 발표	2014.07.24.(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환경농업공학/식품-차산업학/지역환경지리공학

■문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